

협회소식

본회 중부지역 가격조절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위원회를 열어 육용오리 가격을 종전 5천5백원에서 200원 내린 5천3백원, 새끼오리 가격은 종전 1천2백원에서 2백원 인하한 1천원으로 가격을 각각 하향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사육분과 위원회가 호남지역 새끼오리 육용오리 가격 조정이 이미 16일자로 단행돼 시행되고 있어 중부권 역시 가격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민원 제기에 의해 회의가 열려 이같이 결정됐다.

이날 참석한 사육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육용오리 가격이 종전가격에서 2백원 인하된 시세에 거래되고 있고 육용오리 출하일령도 3-4일

**중부권새끼
1,000원 육용
5,300원조정**

늘어나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새끼오리 가격역시 인하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이 지역 육용오리 가격은 육용오리 출하에 따른 중부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5천3백원 시세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부화업계 역시 새끼가격 인하에는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아 1천원으로 인하키로하고 육용오리 역시 사육업계가 요구하는 5천3백원시세의 유지가 합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유통업체역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아 이날 회의는 격한토론없이 이같은 선에서 가격을 유지키로 했다.

본회 중부지역 가격조절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위원회를 열어 육용오리 가격을 종전 5천3백원에서 3백원인하해 5천원으로 새끼오리 가격은 1백원을 인하해 9백원으로 재 조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참석위원들은 지난 6월4일 중국산 가금육 수입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면서 산지오리 출하일령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따라 육용오

**중부권새끼 육백원,
육용오리 5천원
가격조정**

리 산지 거래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지연되면서 일부농가에서 새끼오리를 입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새끼오리 가격역시 재 조정돼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이날 위원회는 육용오리 가격을 실거래 가격인 5천원으로 조정하고 새끼오리는 호남지역에서 1백원을 인하한점을 감안하여 같은 가격으로 조정키로 했다.

본회는 지난 6월 27일 오리산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축산신문사의 주관과 농림부의 후원으로 분당수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

**오리산업당면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날 세미나는 관련업계 관계자가 1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세미나는 당초 농림부 축산경영과 관계자가 오리산업과 관련된 정책발표를 하기로 했으나 오리

업에 실시되고 있는 정부차원의 정책이 없다는 이유로 최염순 사무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날 토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건국대 김정주 교수는 제1주제 「오리산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주제발표에서 오리업은 성장산업임에도 제대로된 정책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못하다며 오리업이 산업적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관련 제도적 장치마련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성환우박사는 제2주제 「오리질병의 효율적인 방역대책」에서 오리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육농가의 방역의식이 우선돼야 하고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한 예방조치가 이뤄져야 질병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박우문박사는 제3주제 「오리육의 영양적 특성과 산업적 가치」주제발표에서 오리고기는 영양적으로 닭고기에 비해 우수할 뿐만아니라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고 특히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성인병 예방에 좋은 육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에는 김규중회장 및 나원주 고문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오리업계의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또 참석자들은 오리업계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질병에 의한 생산성 저하를 들었고 새끼오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역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본회는 지난8일 중국산 가금육 수입중단조치와 관련한 환영과 요식업소의 원산지 표시를 시급히 시행해 줄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성명서를 농림부 및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성명서에서 본회는 지난 6월4일 농림부의 중국산 가금육 수입중단조치는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로 1만5천호 오리업계를 대표하여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콩에서 발생한 조류독감문제가 불거진후 정밀검역에 들어가 중국산 오리고기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검출하여 수입을 중단한 이번 조치는 해외악성 전염병의 국내 유입에 의한 가금산업의 붕괴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위

중국산 가금육

수입중단조치

환영 성명서 제출

협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당국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밀검역이 이뤄진 후 불과 10일만에 병원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검역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역제도의 보완에 의한 검역강화를 촉구했다. 또 위생적인 문제가 있는 수입육에 의해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가 줄어들어 오리사육업계 종사자들은 수입오리고기에 의해 2중3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며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요식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조속히 도입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검역강화 및

협회소식

본회는 지난 17일 홍콩에서 발생된 조류독감 발생과 관련하여 중국산 오리고기 검역강화 및 수입증지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한오협 2001-38호로 제출한 대정부 건의문에서 본회는 최근 홍콩지역에서 조류독감에 의한 닭 40만수 내외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첫째 수입되는 가금류 및 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주시고 특히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같은 사유로 국내서는 조류독감에 의한 가축의 집단폐사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 발생된 조류독감은 강독형 조류독감으로 추정되는바 이 지역 인근에서 수입되는

중국산오리고기

수입증지

건의문제출

축산물에 대한 정밀검역을 통하여 이 질병 유입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홍콩의 조류독감 발생상황에 대한 조사후 중국발생이 확인되

는 경우 중국산 가금육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지난97년도 홍콩에서 발생된 조류독감이 중국에서 수입된 가금육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따라 우리정부는 지난 97년말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수입을 전면중단한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홍콩에서 발생된 조류독감의 원인을 조사하여 중국의 질병 발생상황 역시 체크하여 중국과의 연관성이나 발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내 가금업계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의 보건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조치라고 사유를 밝혔다.

본회는 최근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금지 및 불법유통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농산물 명예감시원 확대를 주요골자로한 농산물명예감시원 지정에 관한 협조문을 해당 팔할 출장소에 송부했다.

협조문에서 최근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리고기 유통특성상 수입 오리고기의 상당량이 소매단계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됨으로써 사육업계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명예

감시원 추천서

공문 발송

따라서 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명예감시원 제도에 본회의 회원을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오리고기 불법유통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지역별 명예감시원을 추천하

여 위촉받고자 협조문을 송부한다고 전제하고 위촉을 촉구했다. 협조문을 송부한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는 공주 연기, 천안아산, 의정부 동두천양주, 강화김포,평택안성, 수원오산용인화성등 6개 출장소이며 추천인원은 6명이다.

본회는 지난 16일 제 3차 이사 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주내용으로 중국산 종란수입과 관련된 건의문을 17일 농림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에서 최근 중국산 종란수입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본회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대처방안에 대해 협의한바 있어 중국산 종란수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처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며 아래와 같이 건의문을 제출했다.

첫째, 현행 종란수입위생조건을 중국의 경우 별도 종란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여 가금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같은 사유로 중국은 지역이 광활하고 가축방역이 선진화되지 못하여 가금인플루엔자등 각종 질병이 상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종란의 경우는 식육과 달리 난계대 전염병이 유입될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둘째, 종란수입위생조건 제정시 오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리종란수입위생조건 및 새끼오리 위생조건을 별도로 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만일 관리상 별도의 위생조건이 어려운 경우 현행 위생조건중 질병별 검사항목에 오리간염 및 장염, 파스튜렐라 등을 반드시 추가해 주

중국산 종란수입과 관련된 건의문제출

시고 오리와 상관없는 질병에 대한 검사항목은 없애 달라고 건의했다.

이같은 사유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란수입위생조건 및 초생

추 수입위생조건은 닭을 위주로 제정되어 오리 질병에 대한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질병 유입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종오리 개량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입되는 새끼오리에 대해서는 오리와는 무관한 질병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셋째, 중국의 종란수입은 현재의 검역상대서는 절대 수입되지 못하도록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같은 사유로 중국은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되어 지난 97년말 수입을 중지한바 있으며 이는 중국이 질병위험성이 높은 지역임을 반증하는 결과이나 이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국내 오리업은 5월들어 사육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오리고기 수입량은 사상 최대에 이르러 머지 않아 국내 산지 오리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있다며 국내 오리업 발전측면에서 중국산 종란수입은 절대 수입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협회소식

본회는 지난 16일 제3차이사회를 열어 중국산 오리알 수입과 관련된 대정부 건의문협의(안), 오리고기 위생고시지역 확대시행에 따른 건의문(안), 오리전염성 간염 백신 사업에 대한 예산협의(안) 및 기타(안)를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

이날 논란이 된 중국산 오리알 수입과 관련된 대정부 건의안에 있어서는 중국산 종란 수입은 국내 오리업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수입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와관련한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또 추후 대정부 질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오리고기 위생고시지역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지역적 도축여건을 감안하여 위생고시지역이 확대되어야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 시도별 오리전용 도축장 건립이후부터 위생고시 지역을 확대토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제3차

이사회 개초

대정부 건의문은 제출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 2차 이사회에서 사업추진을 전제로 했던 오리전염성 간염 백신 사업에 대해서는 협회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성을 세밀히 조사한후 세부안을 토대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기타 안건으로 2001년도 국제축산박람회 참여에 대한 안이 올라와 만장일치로 참여하기로 의결하고 소요예산중 참가 부스에 소요되는 1백50만원내외의 예산은 화인코리아가 협찬하기로 하고 나머지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각 회원들이 협찬하여 충당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행오리에 대한 안전성 및 사료에 첨가시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협회차원에 대책을 수립하자는 안이 제기되어 차기 이사회에서 정식안건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본회는 오리사육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오리전염성 간염 예방을 위한 교육예산을 주요내용으로한 건의문을 지난 5월9일 농림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에서 본회는 지난 4월28일 농림부 위생 51580-715와 관련하여 사육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교육을 실시코자 전국 순회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축산법 3조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

오리전염성 간염

방역교육에 관련

된 건의문 제출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협회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공동으로 실무위주의 오리질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경기남부, 북부, 전남광주, 충남북지역 4개 권역으로 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된 내용은 전문지 및 협회지에 기고하여 홍보교육을 강화

기로 하고 교육내용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육농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오리의 주요질병 및 예방대책, 전염성 간염예방을 위한 사육농장의 위생 및 방역소독대책, 질병예방을 위한 약품 및 백신의 올바른 사

용방법등으로 구성됐다.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1천2백여만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자부담 20%, 정부지원금 80%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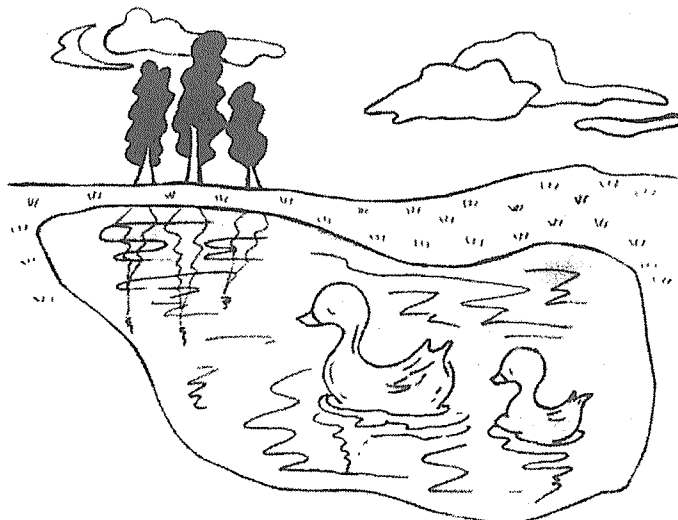
본회는 지난 4월 27일 중국산 부화용 오리알 수입과 관련한 질의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였으나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5월 8일 질의서를 철회했다.

질의서에서 본회는 최근 육용오리 공급부족으로 인해 부화용오리알 수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코자 질의하오니 회신해 달라고 질의했다. 질의내

**중국산 육용오리
생산용 오리알 수입과
관련된 질의**

용은 중국에서 육용오리 초생추 부화를 위한 오리알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 수입이 가능하다면 수입을 위해 사전점검사항 및 검역절차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질의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이 협회가 수입을 전제로한 질의는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질의를 철회 했다.



경기북부지회



분회 활성화 방안 모색

경기북부지회(지회장 박한동)는 지난 5월 29일 월례회의를 열어 분회 활성화 방안 및 회비납부에 관한(안), 지회회원 확충 등에 대한 방안을 협의했다.

지회원 1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지난 4월에 결성한 분회의 결성목적이 지역별 회원간 정보교류 및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분회 회의가 열리지 않는등 문제가 있어 종전대로 지회로 통합해 운영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토론 결과 분회의 조성목적이 거리상 자주 만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지역간 분회를 통하여 지회원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동시에 결속을 다지자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율한해 분회 활동을 지켜본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대신 분회가 활성화되도록 지회장 이하 총무가 각 분회에 회의독려 등 분회 활성화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회비 납부문제에 있어서는 각 분회 및 지회에 참석은 회원들의 자율에 맡기돼 중앙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자의적 결정에 의해 중앙회 회비를 내겠다는 회원에 한해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

한편 회원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중앙회 차원의 협회활동에 대한 회원의 이해를 촉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중앙회 이사는 매월 지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월례회의시 설명하여 협회활동을 회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해를 돕기로 했다.

충남지회

백신사업등 업계동향 의견 교환

충남지회(지회장 민철기)는 지난 29일 지회 월례회의를 열어 최근의 오리 업계 동향 및 전염성 간염 백신 사업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전체 회원 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지난 25일 중앙회에서 개최된 가격 조절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회원들에게 이해를 돕는 한편 전염성 간염백신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방안에 대해 회원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의 오리업계의 사육동향 및 가격동향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하여 회원간의 정보를 교환했다.

광주전남도지회

백신사업등 업계동향 의견 교환

광주전남도지회(지회장 이덕행)는 4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새끼오리, 육용오리 가격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또 수입육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협회차원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지회의 힘을 중앙회에 실어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부지역의 새끼오리 육용오리 가격 조절에 의해 개최된 이날 이사회는 새끼가격에 있어서는 광주전남지역이 항시 중부권에 비해 1백원정도 싼점을 상기시켜 9백원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사육업계의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시기상 6월초 상황을 보가며 추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일부에서 육용오리 가격을 중부권과 같이 5천3백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으나 국내산 오리고기의 수입육과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가격인상은 자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역시 6월의 육용오리 출하 동향을 주시한후 결정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육이 일부 유통업자들에 의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내 사육업계의 피해가 큰 만큼 협회차원의 대책을 중앙회에 건의기로 했다.

이를위해 오는 6월 5일 개최되는 경쟁력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지회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자금모급등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사회 열어 새끼오리 육용오리 가격 조정

본회 광주전남도지회(지회장 이덕행)는 5월 9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협회의 중국산 부화용오리알 수입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안) 및 육용오리 새끼오리 가격조정을 위한 협의(안)를 상정시켜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내용을 보면 중국산 부화용오리알 수입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농림부에 건의해 줄 것을 중앙회에 통보기로 의결했다. 이와관련한 광주전남도지회는 10일자로 중앙회에 대정부 건의문을 보내온바 있다.

한편 육용오리 새끼오리 가격조정에 있어서는 육용오리 가격은 5천5백

원에서 5천원으로 새끼오리는 1천2백원에서 1천원으로 조정키로 하고 16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시장흐름은 육용오리, 새끼오리가 그렇게 과잉공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가격인하 필요성은 없으나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행시기도 결의후 1주일 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키로 했다는게 광주전남도지회의 설명이다.

새끼오리 가격 1백원 인하 육용오리 종전가격 유지

동지회는 지난 15일 가격조절위원회를 열어 새끼오리 가격을 종전 1천원에서 1백원인하키로 하고 육용오리 가격은 종전가격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동지회 사무실에서 가격조절위원 13명이 참석한 이날 위원회는 각 분과별 주장이 달라 장장 3시간의 마라톤 격론 끝에 이와같이 결정했다.

이날 부화업계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종오리 산란율과 부화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새끼오리가 과잉생산되지 않고 있고 사료가격인상등 원가 상승요인으로 새끼오리 가격인하는 시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육 및 유통업계는 오리출하일령이 종전보다 크게 높아지고 소비역시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새끼오리 가격인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반면 육용오리 가격은 출하상황을 좀더 지켜본후 가격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회

오리질병 문제 및 가격동향 의견 교환

경기남부(지회장 조징) 지회는 지난 20일 본회 사무실에서 6월 월례회의를 열어 오리질병문제 및 가격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발안지역 한 사육회원은 간염백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빠다리 육추후 분동되는 시기인 15일령부터 3-4일간 요산침착에 의해 폐사하는 통풍이라는 질병이 발생되고 있으나 뚜렷한 예방 및 치료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질병의 증상은 사료 및 물을 먹지 못해 말라죽는 것이 특징이라며 대책을 호소했다.

또 발안지역에서 참석한 청둥오리 분과 변상현전부회장은 오는 7월 5일부터 개최되는 축산박람회에 청둥오리알 시식 및 판매를 통해 오리고기뿐만 아니라 오리알 소비홍보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일환으로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수매비축제도는 오리업의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리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사육업계 회원들의 적극 동참을 촉구키로 했다. 그러나 수매를 원하는 농가라고 하더라도 농가는 오리운송차량 등을 수배하는데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유통업체인 수매업체가 운송차량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지회는 조상희 총무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차기 총무에 진인식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해 지회업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산경남지회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촉진대책 협의

부산경남지회(지회장 이상길)는 지난 12일 부산 대저동 강변오리촌에서 6월 월례회의를 열어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촉진등 방안등 업계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지회원들은 지난4일 중국산 오리고기 가금인플루엔자 검출과 관련한 방송보도후 국내산 오리고기마저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있다며 협회차원에서 수입산과 국내산이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과 요식업소에서 국내산 오리고기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사육측면에서는 오리전염성 간염 질병문제가 상당부분 수그러들긴 했으나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않는 농가들은 아직도 피해가 크다며 백신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 사육회원은 간염피해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다 해 봤으나 간염에 의한 피해가 줄어



들지 않고 있어 사육을 포기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본회 김규중회장은 부산경남지역이 오리고기 주 소비지인 점을 강조하고 지회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중앙회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 현안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지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오는 27일 개최되는 오리업 당면과제 및 발전방향 세미나와 축산박람회 등 취지를 설명하고 부산경남지회원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북부 일산 고양 김포분회

분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

경기북부 일산 고양 김포분회(분회장 김농현)는 지난 15일 일산소재 다물 유향오리 가든에서 분회를 열어 분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지역 분회원 1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김농현 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적 회원들의 단합과 지역적 회원간의 다양한 정보 공유 등 회원들의 편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회조직을 분회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전제하고 분회 활성화를 위해 분회원들이 회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협회의 기능은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등 협회사업 대부분이 회원들의 직접적인 혜택보다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펼쳐지는 만큼 분회회원들이 이같은 협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분회는 2달에 한 번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분회회비는 회원들의 참석을 독려키 위해 월 5천원으로 정하고 회의식비는 참석자들이 별도로 거출해 지출하기로 했다.